

# 선정 수행 없어도 위빠사나 가능

김재성 동국대 강사

“첫번째 선정(初禪)의 상태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위빠사나가 진행된다.”(임승택) “위빠사나 수행은 초선 이전부터, 즉 선정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김재성)

지난 12일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제17차 학술발표회가 열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법당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날 ‘첫번째 선정의 의의와 위상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임승택(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씨가 “지혜(위빠사나, 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선정(사마타, 止)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초선의 상태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 가장 온전한 상태”라는 주장을 펴자 논평자로 나온 김재성(동국대 강사)씨는 “초선 이전에도 얼마든지 위빠사나가 가능하다”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토론 문화 부재’라는 비판 속에서도 한국 불교학계는



# ‘위빠사나’ 논쟁 치열

불교학연구회 학술발표회

지금 몇 번째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은 최근 3~4년 사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소장학자 3명(조준호, 임승택, 김재성)이 이끌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의 출발이 되는 사띠(四諦)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이들의 논쟁은 최근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 문제에 이르러 정점을 맞고 있다.

임씨가 초기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선정의 모든 단계에서 위빠사나가 가능하지만 가장 완전한 형태의 위빠사나는 초선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팔리 주석서를 주 텍스트로 삼은 김씨는 선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논지를 펼친다. 이날 발표회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준호(동국대 강사)씨는 사선(四禪)까지 선정을 완성한 후에

# 선정없이 불가능 초선때 수행 익어

임승택 불교문화연 교수



실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다듬어간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12일 사회를 맡은 황용식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는 “해석학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갖고 토론에 임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논쟁을 지켜본 대다수 학자들은 “워낙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니 그 차이를 즐기지 힘든 측면도 있다. 발전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모처럼 불교 학문적 논쟁이 당사자는 물론 학계에도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다.

# 학계에 자극제... 지나친 자기 입장 고수

야 위빠사나 수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술발표회 때마다 전장(戰場)을 방불케 하는 이들의 치열한 논쟁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의 초기불교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한몫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적 전착이 아니라

수 학자들은 “워낙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니 그 차이를 즐기지 힘든 측면도 있다. 발전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모처럼 불교 학문적 논쟁이 당사자는 물론 학계에도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절 (5)

전망속에 펼친 화엄의 뜻

문무왕의 명을 받은 의상대사는 소백산 절기인 봉황산에서 제1회 화엄의 교지를 펼치려 하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소승 잡배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 건립이 여의치 못하였다. 그때 중국에서 의상대사를 사모한 선묘(善妙)가 용으로 변신하여 따라와서 부석(浮石), 즉 돌을 띄우는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676년에 드디어 이곳에 절을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부석사를 세우게 된 연유이다.

이 사찰의 압권은 전망이다. 무량수전에 오르노라 가빠진 숨을 고르고 잠깐 뒤를 돌아보면 소백산의 작은 봉우리들이 물결치는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잡힌다. 바다 같이 넓은 산하를 부석사의 마당처럼 품을 수 있는 스케일은 천하를 굽어보는 듯한 통쾌함을 넘어 아련함까지 느끼게 한다.

사이사이를 작은 돌로 채워놓은 짜임은 대비의 구성이 돋보인다. 범종각을 들어서면 그 집안이 예상못지 않다. 이 건물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놓여 있어 누를 길게 지나 계단을 오르게 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는 팔작지붕이지만 나올 때는 맞배지붕이다. 공간의 마디에 해당하는 범종각에서 바짝 조여지다가 취현암과 유물관이 좌우로 늘어선 마당으로 풀려지고, 안양루에서 다시 한번 조여져 그 밑을 지나 이 사찰의 중심건물인 무량수전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범종루까지 직선으로 전개되던 통성이 안양루 앞에서 왼쪽으로 살짝 꺾어져 공간의 변화를 맛볼 수 있다.

무량수전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웅장한 건물이다. 다양하게 엮어진 집안로의 구



◇부석사: 무량수전을 오르는 과정은 매우 극적이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천하제일이다.

#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건축의 백미

# 산간 경사지에 위치... 천하를 굽어 보는듯

부석사는 의상대사 이후 조선시대까지 신축과 중축을 거듭하였다. 통일신라의 유물로는 당간지주, 석축, 석등이 남아 있고, 고려시대에는 무량수전과 조사당, 조선시대에는 안양루, 범종각 등 여러 전각들이 건립되어 그 역사의 두께가 결코 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안양루, 범종각 등 여러 전각들이 건립되어 그 역사의 두께가 결코 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안양루, 범종각 등 여러 전각들이 건립되어 그 역사의 두께가 결코 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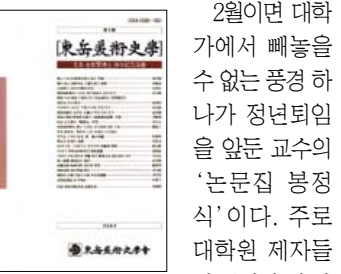
비탈길과 계단을 번갈아 오르는 경사 속에서 조였다 푸는 공간구성은 드라마처럼 극적이다. 천왕문은 이미 단을 높여 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 이곳부터 범종루 사이에는 다시 두 단의 석축을 두어 공간의 위계를 나누었다. 특히 이 석축은 불국사 석축과 더불어 통일신라 석조미술을 대표한다. 큰 돌로 자유롭게 짜 맞춘 뒤 그

상은 이 건물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 유난히 크게 보이는 지붕은 무겁게 내려누르지만, 살짝 치켜 올라간 처마와 가운데에 볼록한 배흘림기둥이 그 중량감을 시각적으로 가볍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무량수전 안을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한 불상의 배치를 볼 수 있다. 건물은 봉황산에 기대어 남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의 아미타불은 동향을 하고 있다. 건물의 앞을세우는 아미타불이 계산 서방극락의 의미를 살려 서쪽을 배경으로 취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석사 건축의 절정을 만나게 된다.

의상이 펼친 화엄의 큰 뜻은 결코 후세에도 굴절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을 가꾸는 정성으로 상승되어 오늘날 건축적으로 가장 찬사를 받는 사찰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 동악미술사학 3호 발간 김동현 박사 정년 기념



2월이면 대학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하나가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의 ‘논문집 봉정식’이다. 주로 대학원 제자들이 중심이 돼 하

다못해 ‘기념식’이라도 갖는 게 상례다. 그런데 김동현 전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그것마저 번잡스럽다며 조용히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석좌교수)로 내려갔다. 강단에 섰던 시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99~2003) 국립문화재연구소장(96~98년)을 지냈고 지금도 활발히 고건축 보수·복원에 관여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아쉬움이 남는다.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장종식)는 그런 김 교수를 위해 최근 발행된 학회지 <동악미술사학>(연간) 제3호를 바쳤다. ‘오른 김동현박사 정년기념논총’으로 꾸민 학회지에는 월례발표회 때 발표된 10편의 논문 외에도 장종식 교수(동국대) 등 10명이 새로 논문을 썼으며 한국 불교건축사 관계 논문 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고려시대 팔관회를 재현한 상상도(한국생활사박물관-고려생활관 1' 중).

연등회와 함께 고려사회의 가장 큰 축제였던 팔관회는 왕실과 지배층 위주의 고도로 정치화된 축제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12일 열린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박경하) 제90차 연구발표회에서 구미레안동대 민속학과 박사과정 수료씨는 “팔관

# “고려 팔관회 지배층 중심 축제

# 왕권강화 위해 조직결속에 중점”

회의 축제적 성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집단이 왕과 지배집단으로 제한되고 불거리 위주의 이벤트로 채워짐으로써 하층민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축제 성격이 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불교의 팔관제(八關齋戒)에서 시작된 팔관회는 일부 계층이나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였다는 것이 그간 학계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그러나 구씨는 “왕권 강화와 함께 공동체 통합 기능이 팔관회를 중요한 국가 행사로 500여 년간 지속시킨 주요인”이라며 “공동체 통합의 경우도 지배층과 국가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 팔관회를 통해 범국민적 결속이 이뤄졌다고 보고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 “왕인박사 구림출생설 근거 희박 일제때 만들어진 현대 산물”

왕인 박사 유적지나 도선 국사 유적지나? 전라남도 기념물 20호인 ‘왕인 박사 유적’의 상당수는 도선 국사 관련 유적이와전되거나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고대사 제71회 정기발표회에서 문안식(조선대 강사)씨는 “왕인 박사의 구림출생설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출생 설화와 관련 유적 대부분이 신라말 구림에서 태어나 활약한 도선 국사의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8번지 일대는 왕인 박사의 출생지로 알려져 집터인 성기동 고택과 책굴, 문산재와

왕인사, 책굴 앞에서 있는 ‘왕인상’ 등이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문씨는 <속일본기> 등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중국에서 이주해와 백제의 문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왕구(王狗)의 손자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구림에서 태어났을 리가 없으며 △왕의 요청으로 일본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하면서 당시까지 토착세력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던 구림 출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왕인에 대한 최초의 국내 자료로 1920년에 나온 <조선환여승람>인 점 등을 볼 때 ‘구림 출생설’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대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 禪

## 참선교육 (선수행입문서)

♪ 月 — 참선은 사부나 하나 — 月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반져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화할때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裁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제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제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신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선사 백문백답]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원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권 4천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날권 판매 기능 (15,000원)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안내 : 참선교육 60기 교육 (4월 29일 화) 오전 10시, 오후 7시 교육비 3만원

#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형사초용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자전구(명품)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열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형사초용 및 연등용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등)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 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11) 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결포동 389-43